

건강 검진자에서 위하수증의 임상적 의의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박상중*, 이풍렬, 손희정, 김지은, 김재준, 고광철, 백승운, 이종철, 최규완, 임효근*

연구 배경 : 1885년 Glenard의 기술 이래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증상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내장하수증의 한 종류인 위하수증은 상부위장관 조영술에서 위각이 양쪽 장골능을 연결한 선 아래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는 위하수증의 임상적 의의가 의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다른 기질적 원인이 없는 소화불량의 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낮은 비만도가 위하수증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본 연구는 건강 검진자에서 위하수증의 유병율을 조사하고, 위하수증과 기능성 소화불량의 연관성을 알아보며, 위하수증과 관련된 임상적 특징들을 성별, 연령, 체중, 신장 및 여러 가지 비만 지표들의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3월 한 달 동안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하여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받은 442명(남자 240명, 여자 202명, 평균 연령 49.5 ± 10.8 세)을 대상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Rome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하였다.

결과 : 1)건강 검진자에서 연령을 보정한 위하수증의 유병율은 5.0%였다. 2)건강 검진자에서 연령을 보정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율은 12.1%였다. 3)위하수증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계가 없었다. 4)위하수증은 여자에서 많았으며, 저체중, 저신장 및 비만도,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등의 비만 지표가 낮은 경우에 많았다. 5)다변량분석에서 저체중만이 위하수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결론 : 위하수증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이 없으며, 저체중과 연관된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항문경 환자의 바이오피드백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최문석*, 이풍렬, 손희정, 김재준, 고광철, 백승운, 이종철, 최규완

배경 및 목적 항문경은 배변 기능 장애 중 가장 흔하게 보는 형태의 하나로 배변 시도 시 치골직장근의 이완 장애 혹은 역행적 수축에 기인한다. 바이오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연자 등은 항문경 환자의 바이오피드백 치료 효과에 어떠한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1월에서 1998년 3월까지 본원에서 항문경으로 진단받고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배변 횟수가 치료 전 주 3회 미만에서 2주간의 바이오피드백 치료 후 주 3회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를 치료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치료 성공군과 실패군 간에 환자의 특성, 변비력 및 배변조영술, 풍선배출검사, perineometry, 항문직장내압검사, 대장통과시간 측정법, 직장자동압력조절장치 등의 검사 소견을 비교하였다. **결과** 총 45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남녀비는 1:2.5이었고 나이는 21-69세(중앙값 50세)였다. 치료 성공군은 31명이었고(치료성공률; 69%) 실패군은 14명이었다. 직장내압검사상 항문강 길이는 성공군 4.09 ± 0.59 cm, 실패군 4.54 ± 0.52 cm으로 실패군에서 유의하게 길었고($p = 0.04$) 직장 최대인내용적은 성공군 303 ± 70 ml, 실패군 365 ± 91 ml로 실패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 = 0.028$). 환자의 나이, 성별, 변비력 및 다른 검사 소견 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항문강 길이와 직장 최대인내용적이 항문경 환자의 바이오피드백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